

1987년~1998년 신문지면에 사용된 전생활(全生活)백화점의 지역시설로서 의미

박연정*

¹건축사사무소 엔.아이.에이

A Study on the Meaning as Regional Facilities of 'Whole life Department Store' Appeared in newspaper from 1987 to 1998

Yeon-jeong Park^{1*}

¹N.I.A

요약 본 연구는 1980년대 말 신문 지면에 등장한 '전생활백화점'의 의미를 건축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전생활백화점은 판매 이외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백화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나타난 용어이다. 단어 자체로 보면 '전생활'은 전(全)과 생활(生活)의 합성어로 전체 생활을 의미하므로, 구분된 생활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대 이후 도시와 건축에서 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공간과 건축물 등을 분류하고 구분한 지역시설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시설로 '전생활백화점'을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지역시설의 구분체계에서 일반적으로 백화점은 3차(광역) 생활권의 시설이다. 하지만 용어가 등장한 당시 백화점의 입지와 프로그램분석을 통해 백화점이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일상생활범위 내에 위치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그들의 일상생활을 위한 공간들을 포함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즉 전생활의 전(全)은 1차, 2차 생활, 3차 생활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입지적으로는 1차생활권에 위치한 3차생활 지역시설이었다. 이러한 특수한 백화점은 현재까지도 유효하기에 유의미하며 더 이상 전생활백화점이라는 용어는 별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architectural meaning of the term 'Whole life Department Store' that appeared in newspapers' in the 1980s. A term of 'Whole Life Department Store' is appeared to explain the emergence of department stores, including the space for a wide range of programs and services they need to live, as well as sales. This word, "Whole life", is a compound of the Whole(全) and Life(生活) and word means the entire life. This will assume that you are separated life. So I was thinking that it could be described as regional facilities that classify and distinguish the necessary space for living and building maintenance, etc. in city and architecture since the modern. And Based on this, I would understand the whole life department as regional facilities. Generally a department store is a regional facilities for higher level living area. I analyzed the location and program of department stores at the time of the emergence of the term. Through this analysis department store was located in the daily range around the apartment complex and contained spaces for the daily life of the inhabitants apartment complex. It is significant in this particular department to be valid today and the term of 'Whole Life' department store is not longer used.

Keywords : Community Facilities, Location, Space Program, Whole Life Department Store

본 논문은 연구자 본인인 박연정(2014)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Corresponding Author : Yeon-Jeong Park(N.I.A)

Tel: +82-10-3514-4486 email: engeng21@naver.com

Received February 25, 2015

Revised (1st October 12, 2015, 2nd November 20, 2015)

Accepted December 4, 2015

Published December 31, 2015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30년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백화점이 등장한 이래 백화점은 서울, 부산, 대구 등의 주요 대규모 도시의 도심에서 나타났지만,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과 이어진 전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1960년대에는 전후(戰後)복구 노력과 경제적 성장 속에서 서울 지역의 백화점은 일제강점기에 개점하였던 도심 백화점을 중심으로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으며, 1970년대가 되면서부터는 도심과 청량리에서 새로운 백화점이 나타나 양적 증가가 시작되었다. 특히 1970년대 중반이후에는 급격히 증가한 서울시 인구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강 이남지역이 집중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이와 함께 백화점의 양적 증가가 크게 이루어졌다. 특히 1979년 개점한 한양쇼핑센터(현 압구정갤러리아WEST)를 시작으로 아파트단지 내 상가 혹은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들 백화점은 문화센터, 스포츠센터, 관공서 업무대행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전 시기 도심에 있던 백화점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1986년 신문에서는 ‘지역 밀착형백화점’, 1987년에는 ‘전생활백화점’이라는 용어로 설명되었다. ‘지역밀착형’은 그 용어로부터 특정 지역과 위치적으로 가까우며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밀착형’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의 백화점을 설명하면서 ‘전생활백화점’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즉 ‘전생활’은 전(全)+생활(生活)의 합성어로 생활 앞에 붙은 전(全)은 한자로 된 명사 앞에 붙어 온 모든 전체(全體)라는 뜻을 가지는 말로 사용되기에[1] ‘전생활’의 1차적인 의미는 전체 생활 혹은 모든 생활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고, ‘전생활’이 가능한 또는 담겨 있는 백화점이라고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전생활백화점’이라는 특수한 용어의 정확한 의미는 알려져 있지 않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 용어를 재고하고 건축적으로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앞서 1980년대 말 신문지면에 등장한 용어인 ‘전생활백화점’의 건축적 의미를 재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생활’이 생활에 대한 분리와 그것을 통

합하고자 하는 단어라는 것으로부터 근대 이후 도시계획을 위한 조닝이나 생활권 계획과 시설의 배치 설명하는 ‘지역시설’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전생활백화점’을 건축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지역시설로서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지역시설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을 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시설은 주거지로부터 접근성,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생활권을 구분하고 지역시설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이해하였으며, 백화점의 지역시설로서의 일반적인 층위를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실제 ‘전생활백화점’이라는 용어가 신문 지면상에서 등장한 사례와 내용 정리를 통해 당시 주요 백화점들에 나타난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4장에서는 ‘전생활백화점’로 지칭된 백화점들의 지역시설로서의 층위를 고찰하기 위하여 ‘전생활백화점’의 입지를 주거지 특히 아파트단지와의 거리 관계로 분석하였고, 이와 더불어 백화점에 나타났던 부수적인 기능들을 분석하였다. 이 결과를 다시 2장에서 살펴보았던 지역시설의 층위로 재고함으로써 ‘전생활백화점’의 지역시설로서의 의미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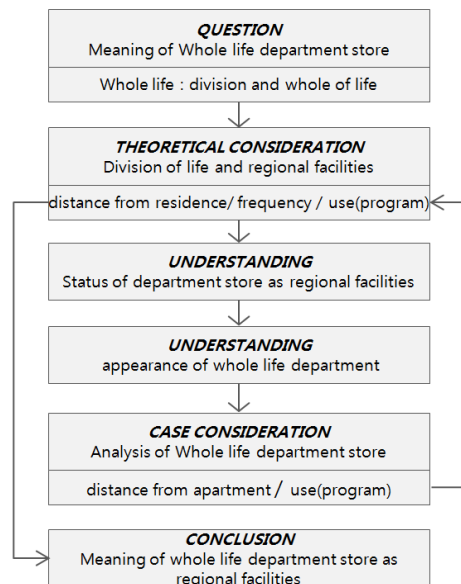


Fig. 1. Research Process

2. 지역시설의 이해

2.1 지역시설의 개념

‘지역시설’은 <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건축용어사전(2011)』을 따르면 ‘지역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주거지 가까이에 있는 시설을 총칭’하는 것으로 유치원, 초중고교, 진료소, 병원, 집회소, 도서관, 점포, 마켓, 우체국 등이다. 고상균의 『건축설계론(2003)』에서 광의의 지역시설은 ‘공동시설’, ‘관련공공시설’, ‘도시시설’, ‘생활기반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의 ‘건축과 토목’, ‘조경’부분을 포함한 주민을 위한 시설 및 구조물을 지칭하며, 협의의 지역시설은 지역문화시설에 한정할 수 있고 시민을 위한 문화활동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주민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이라고 정의되었다.[3] 고상균이 정의한 지역시설의 개념은 저서 『건축설계론(2003)』보다 먼저인 1984년에 발간된 일본의 『신건축학대계(新建築學大系)21-지역시설계획』 편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서는 ‘도시시설’, ‘생활기반시설’은 주로 도시설계 분야에서 사용되어져 도시 내의 공공적 시설들을 의미하는 것이며 ‘생활기반시설’은 산업기반시설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도시의 재생산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시설들이라 설명하였다. 또한 시설이라는 표현 그 자체는 도로, 상하수도 등의 인프라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지역시설에서 의미하는 시설은 인간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축적 시설 또는 공간단위를 모두 포함하며, 도시설계에서 공적으로 관리·운영되는 것만을 의미하지만 건축계획에서는 사적으로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지더라도 지역 생활에 필요한 것이면 지역시설 칭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즉 ‘지역시설’은 생활을 영위해 가는데 필요한 건축적 시설 및 공간을 의미하며,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2]

2.2 지역시설과 생활권

1984년 지역시설을 정의한 문헌 『신건축학대계(新建築學大系)21-지역시설계획』에서는 지역시설의 종류와 위계를 구분하고 있다. 이는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디에 얼마나 계획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생활권’ 개념으로 지역시설의 이용 빈도,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시설들의 층위를 구분하였는데, 이는 국내 주거지계획이나 신도시 계획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60년대 단독주택지 조성을 위하여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을 수용하고자 노력하여, 상가나 시

장 등의 배치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규모와 시설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는 않았다. 생활권 개념이 구체화된 것은 1970년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인데, 교통수단과 거리 등을 고려하여 1·2·3차 혹은 소·중·대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김철수의 『단지계획(1994)』 [4]와 박병주, 김철수의 『신편도시계획(2001)』 [5]에 따르면 ‘1차 생활권’은 대규모 주거단지의 크기로 도보로 이동가능하며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통학권과 전통적 시장 형성이 될 수 있는 규모이며, ‘2차 생활권’은 지역중심이 있고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고등학교 통학권이 있고 자체적으로 도시서비스를 완결할 수 있는 규모를 말한다. ‘3차 생활권’은 하나의 도시라고 느끼는 실질적인 범위를 말하며, 각 생활권 별 지역시설은 다음과 같다.[3]

『신건축학대계』에서는 1·2·3차 생활권이라는 용어 대신 일상생활권·광역생활권·고차권역으로 구분하였다. 일상생활권은 주거지로부터 도보 혹은 자동차로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것이며, 광역생활권은 자동차 및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범위를 말한다. 각 생활권에 분류되어 있는 지역시설들을 국내 저서와 비교해 보면 일상생활시설은 1차·2차 생활권을 포함하고 있는 용어로 볼 수 있고, 광역생활권과 고차권역의 지역시설은 3차 생활권에 섞여 있다. 생활권의 개념은 자가용의 보편화, 인구의 감소 등의 다양한 사회적 구조변화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계속 수정되고 있으며, 수정되어야 함을 연구자들이 밝히고 있기에 분명 절대적인 계획원칙은 아니지만 각 지역시설이 가지는 기본적인 성격의 변화가 크게 있는 것은 아니다.

2.3 백화점의 지역시설 층위

역사적으로 백화점은 근대 자본주의 도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새롭게 등장한 상업시설로 인구가 밀집해 있으며 교통이 편리한 곳이었던 도시의 중심, 즉 도심에 먼저 입지했었다. 근대 도시가 확장되기 전 도심은 주거기능과 상업 및 업무기능 등이 복합되어 있었기에 도시민의 일상생활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도심에서 주거의 기능은 축소되어간 것이 보편적이었으며, 도심은 다른 지역의 생활권으로부터 접근성이 높은 곳을 상징하기에 백화점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 요구되는 시설들은 도심에서부터 나타나게 마련인 것이다. 또한 백화점은 수요자가 한정적일 수밖에

에 없는 고급 판매시설이자, 대규모의 건축물로 건립되기에 많은 수가 한꺼번에 경쟁할 수 없다.

이런 속성들로 인하여 ‘지역시설과 생활권’의 관점에서 백화점은 1·2차 생활권 지역시설이 아니라, 3차 생활권 지역시설임을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백화점은 광역적 범위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으며, 매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 가끔씩 이용하는 시설로 주거지에서 도보 보다는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지역시설이다.

Table 1. Living Area & Public Facilities

index	Primary Living Area	Secondary Living Area	Tertiary Living Area
Range	-on foot -10,000~20,000 persons	-by public transit -50,000~100,000 persons	-actual city -200,000~300,000 persons
Administration	-Office of dong -Post office -Police substation	-Branch office	-Ward office -Police station -Fire station
Education	-Kindergarten -Prim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Library	-College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Leisure	-Children parks -Neighborhood park -Play ground	-District park -Sport ground	-Urban park -Stadium
Social Welfare	-Day care center -Hall for the Elderly -Meeting hall -Community hall	-Welfare center -Youth center -Public vocational training agency -Consultation station	-Special welfare center -Nursing home -Orphanage -Juvenile corrective institution -Rehabilitation center for the disabled
Health	-Hospital-clinic -Dentistal clinic -Oriental medical clinic -Pharmacy	-Community health center -General hospital	-Large-scale General hospital -Special hospital -Health research institute
Distribution	-Supermarket -Retail market -Bank -Community Safe	-Regional shopping center -Wholesale market	-Subcenter -Department store -Distribution complex

(Source : Park., Kim.(2001), [5])

3. 전생활백화점의 등장과 확대

3.1 전생활백화점 등장

일제강점기에 등장하여 발전하다가 전쟁으로 인해 성장이 멈췄던 백화점은 1970년대 초부터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다시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새로운 백화점(코스

모스백화점, 새로나백화점, 미즈백화점 등)들도 개점하였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부도심지로 성장하고 있던 제기역(가고파백화점)과 청량리역(맘모스백화점) 주변에 개점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까지 주거지 주변(한양, 뉴코아, 영동, 유니버스, 현대, 파레스백화점)과 영등포와 여의도의 부도심에도 등장하여 백화점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86년에 ‘지역밀착형’ 백화점이라는 용어가 신문(매일경제 1986년 4월 5일 10면, “그랜드, 29일 개점”)에서 사용되었다. 이 기사의 일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략)그랜드 백화점은 기존사들과 달리 총건평의 절반 가까이를 레저스포츠시설로 꾸렸으며, 슈퍼시설도 프랑스의 최신식장비를 설치, 차별화를 기했다. 채남술 전무는 ‘레저스포츠시설을 대규모로 겸비한 지역밀착형백화점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인 만큼 일반인들의 호응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후략)

기사 내용으로부터 지역밀착형 백화점은 기존 백화점, 즉 도심의 백화점보다 ‘슈퍼마켓이나 레저·스포츠시설을 더 포함하고 있는 백화점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후 1988년의 기사에서는 ‘주민생활문화거점’(매일경제, “우후죽순, 상권 바뀐다”, 1988.8.19, 13면), ‘레저스포츠시설과 판매시설의 복합거점’(매일경제, “현대 다점포 휴제 박차 반포레저타운 문 열어”, 1988.12.12, 13면)이라는 설명과 함께 ‘지역밀착형’ 백화점이 설명되었다.

‘전생활백화점’은 1987년 “全生活(전생활)백화점 속속 등장”(매일경제, 1987.10.29, 10면)이라는 기사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이 기사에서는 ‘전(全)’이라는 한자어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전생활=전체 생활 혹은 모든 생활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히며, ‘백화점 한 곳에서 생활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백화점을 ‘전생활백화점’이라고 하고 종래의 한 곳에서 모든 쇼핑이 가능토록 한 윈스톱 쇼핑공간으로의 백화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며 상품판매 이외 레저 스포츠·어린이 놀이시설, 증권·금융·보험, 외식을 위한 식당, 관광교통, 기상안내, 부동산 투자정보 등 각종 용역·정보문의센터를 갖추고, 쇼핑과 함께 하루 생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형태의 백화점이라 소개하였다. 1988년에는 다른 신문들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로 ‘전생활백화점’을 설명(경향신문, “쇼핑·공연·금융·보험·각종상담까지 『전생활백화점』 시대활짝”, 1988.01.27 7면)하며, 특히 쇼핑과

함께 일상생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시설과 기능을 갖춘 백화점이라고 칭하였다. 이는 앞서 사용되었던 특정한 지역과 인접하면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스포츠레저시설을 포함한다는 의미의 ‘지역밀착형’을 내포하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현대 도시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등장한 용어였다.



Fig. 6. Whole-life Department Store in Newspaper source : Maeil Economy, 29, Oct.1987)

3.2 용어 사용의 시기적 특성

현재 우리는 백화점을 설명할 때 ‘전생활백화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해당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전생활백화점’이 보편성을 가지게 되었거나, 의미 상실로 인하여 폐기되는 시기성을 가지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내 포털사이트 NAVER가 제공하는 뉴스라이브러리 및 뉴스에서 ‘전생활백화점’을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이를 통해 총 50회 정도 기사에 언급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 대상은 그랜드(현 롯데 강남)·두봉(부재)·롯데 잠실·현대 무역센터·삼풍(부재)·롯데 본점·신세계 미아(현 이마트 미아)·한신코아 중계(뉴코아 중계)·건영 옴니·미도파 상계(현 롯데 노원)·현대 본점·LG 부천(현 롯데 부평)·세원 부산(현 롯데 부산동래)·센토(현 2001아울렛 중계)·애경·나산(부재)·세이 대전·가든 광주(폐점)·진로 아크리스(폐점)·그랜드 일산·롯데 광주로 모두 21개점이었으며, 1987년 등장을 필두로 1998년에 마지막(매일경제, “롯데백화점 광주점 내일 개점”, 1998.09.17 15면)으로 등장하여 약 10년간 중점적으로 사용되었다.

1987년 첫 등장 후 다음해인 1988년에 총 14회가 언급되어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1988년이라는 해는 다양한 시기적 의미를 가진다. 우선 사회적으로 국제스포츠행사인 올림픽이 서울에서 개최되어 대한민국의 위상이 격상되었으며, 앞선 1986 아시안게임 이후 국민

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주거양식에 있어서도 강남지역의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생활도 일반화되었다. 백화점의 수적인 증가 및 지점 확대 이어졌는데, 롯데 본점은 신관을 확충하였고 잠실에 지점을 개설하였으며, 압구정에 본점을 둔 현대백화점도 무역센터와 반포에 지점을 개점하면서 서울에서만 1988년에 모두 5개(한신코아 중계점 포함)의 백화점 문을 열었다. 또한 이들 백화점은 모두 ‘전생활백화점’으로 지칭되었음을 [Table. 2]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덕분에 이 시기의 백화점에 대하여 구자영(1988,[7])은 제3세대, 미래형 백화점이라 하여 기능이 확대되고 생활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백화점이 되었다고 하였다. 박연정(2012,[8])은 서울시 백화점 전개양상에 대하여 1988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을 ‘부도심강화기(1979~1988, 14개점)’로, 그 이후를 ‘지역중심확대기(1988~1999, 17개점)’로 구분하였으며, 이 두 시기가 아파트단지 주변으로 백화점의 확장이 이루어졌음을 밝힌 바 있다. ‘지역중심확대기’에 포함되는 백화점과 ‘전생활백화점’이 신문에 등장한 시기 및 대상이 거의 일치하여 지역밀착형으로부터 시작된 ‘전생활백화점’은 아파트단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 Appearance of Whole-life Department Store in Newspapers

reference in newspapers		
year	number	name of department store
1987	3	Grand, Doobong., Lotte Jamsil, Hyundai COEX, Sampoong
1988	14	Grand, Lotte Main, Lotte Jamsil, Hyundai COEX, Sampoong, Sinsegae Mia, Hansin Coa Junggye
1989	4	Grand, Lotte Main, Lotte Jamsil, Hyundai Main, Sampoong
1990	-	-
1991	1	Geonyeong Omni
1992	4	Midopa Sanggye, Hyundai Trade Center
1993	4	Hyundai
1994	8	LG Bucheon, Hansin Coa, Sewon Busan, Cento, Aekyung
1995	4	Hyundai COEX, Nasan, Sewon Busan, City Bucheon
1996	5	Say Daejeon, Garden Gwangju, Jinro Acris
1997	2	Grand Ilsan
1998	1	Lotte Gwangju

1994년부터는 ‘전생활백화점’의 대상이 지방으로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인접한 곳에 아파트단지가 없는 도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생활백화점’으로 소개 되었다. 이는 다양한 생활문화 및 판매 이외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이라는 의미로 ‘전생활백화점’을 수용하였음을 뜻하며, 우리가 현재 접하고 있는 백화점들의 기능들을 생각해 볼 때 ‘전생활백화점’은 보편성을 가지게 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4. 지역시설로 전생활백화점

2장에서 지역시설은 생활권 개념으로 주거지와외의 거리관계 및 용도별로 구분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3장에서는 ‘전생활백화점’이 신문지상에 등장하였을 당시 설명과 용어의 사용시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아파트단지와의 관계(위치 및 기능) 속에서 해당 용어가 사용되었음을 밝혔다. 따라서 4장에서는 전생활백화점이 가지는 특성이 지역시설로서 가지는 의미를 밝히고자, 이론적으로 광역생활권에 포함되어 있는 백화점의 입지적 측면(4.1절)과 용도적인 측면(4.2절)을 분석하였으며, 앞서 전생활백화점이 보편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 것을 확인하고자 2000년대 이후 백화점들의 양상에 대하여서도 함께 서술하였다.

4.1 일상생활권에 위치한 백화점

‘전생활백화점’의 입지를 지역시설에서 구분한 생활권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용도지역과 주거지와외의 거리관계를 분석하였다. 용도지역은 크게 상업지역과 주거지역과 기타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주거지와외의 관계는 생활권의 기초가 되는 도보 기능이라는 시간적 개념을 백화점과 아파트단지와의 물리적 거리관계로 이해하여, 성인 보통의 경우 직선거리 약 800m를 도보 10분이 소요되는 것을 기준으로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대로변까지 이동하는 거리 등이 더해지기에 백화점으로부터 반경 200m이내 400m이내 아파트단지의 유·무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통하여 type A~L의 모두 12개의 유형으로 Table. 3과 같이 분류하였다. 이들 유형 가운데 아파트단지는 아니지만 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사례는 해당 유형을 소문자로 표기하였다.

Table 3. Type of Department Store Location

Apartment	ZONING											
	Commercial				Residential				etc.			
radius 200m	X	X	O	O	X	X	O	O	X	X	O	O
radius 400m	X	O	X	O	X	O	X	O	X	O	X	O
type	A	B	C	D	E	F	G	H	I	J	K	L

이를 바탕으로 앞서 3장에서 ‘전생활백화점’으로 언급되었던 백화점들의 입지 및 유형을 확인한 것이 [Table. 4]이다. ‘전생활백화점’의 입지유형은 D에 해당하는 사례가 모두 8개, 아파트단지는 아니지만 주거지가 있는 유형 d가 3개, H에 해당하는 것이 5개이며, h가 1개, 유형 A가 3개, I가 1개 있다. 즉 유형 D와 H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유형 H는 백화점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면서 반경 200m와 400m 내 아파트단지가 위치하는 매우 특수한 유형이며, D는 상업지역에 위치하지만 반경 200m와 400m 내 모두 아파트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아파트단지 혹은 주거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의 시기적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4년 5월 기준으로 전국에 위치한 75개(롯데 31개, 현대 13개, 신세계 10개, 갤러리아 5개, AK 5개, 그리고 기타 11개)의 백화점을 같은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전생활백화점으로 지칭되던 것들 가운데 현재에는 폐점되었거나 다른 업체 혹은 다른 브랜드 백화점으로 변경된 경우도 있지만,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기에 사례들의 유형을 조사하였고, 이들을 개점 연도별로 분류한 것이 [Table. 5]이다.

정리된 표를 보면 ‘전생활백화점’의 주요 유형이었던 D와 H는 이 용어가 등장하기 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1980~90년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났고 2000년 이후에도 유형 D는 지속적으로 나타난 반면 유형 H는 개점하지 않았다. 이는 실제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소매시설이 제도적으로 주거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불가능기 때문이다. 반면 가장 많은 수의 백화점을 포함한 것은 바로 유형D이다.

Table 4. Whole Life Department Store Location

			
rand-type H	Doobong-type h	Sewon Busan-type D	Cento-type D
			
Lotte Jamsil-type D	Hyundai COEX-type I	Aekyung-type D	Nasan-type d
			
Sampoong-type H	Lotte Main-type A	Jinro Acris-type d	Say Daejeon-type H
			
Sinsegae Mia-type d	Hansin CoaJ ungye-type D	Garden Gwangju-type A	Grand Ilsan-type D
			X
Hyundai Main-type H	Geonyeong Omni-type D	Lotte Gwangju-type A	
		<p>[index]</p> <p>○ - radius 200m, ● - radius 400m</p> <p>● 중심상업 ● 일반상업</p> <p>● 일반주거 ● 준공업</p>	
Midopa Sanggye-type D	LG Bucheon-type H		

Table 5. Analysis on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Department store

type	zoning	Apartment		Case (unit : places)					total
		radius 200m	radius 400m	~ 1970'	1980's	1990's	2000's	2010's	
A	Commercial	X	X	3	-	6	5	1	15
B		X	O	-	1	2	4	2	9
C		O	X	-	-	2	1	1	4
D		O	O	-	2	9	10	3	24
E	Residential	X	X	-	-	-	1		1
F		X	O	-	-	1	4	1	6
G		O	X	-	-	-	-	-	0
H	etc.	O	O	1	2	3	-	-	6
I		X	X	-	1	2	-	2	5
J		X	O	-	-	-	1	-	1
K		O	X	-	-	-	-	-	0
L		O	O	-	-	-	3	1	4
total				4	6	25	29	11	75

유형D는 1980년대 2개점(롯데 잠실점, 현대 울산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건립되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단지 중심의 주거지가 계획된 신도시나 신시가지에 위치하는 것으로 아파트단지의 배후 상업시설로 백화점이 위치하게 계획되었기 때문이다. 현대적이고 편리한 생활의 제공은 신도시, 신시가지 인구유입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그러한 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전체적으로는 반경 200m 내, 즉 도보로 5~10분 이내 거리에 아파트단지가 위치한 C, D, G, H, K, L의 유형이 모두 38개소로 전체 백화점의 1/2에 해당하기에 국내 백화점이 아파트단지와 위치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백화점으로부터 반경 200m와 400m 내에 아파트가 위치하는 않는 유형은 A와 E 그리고 I로 총 21개소에 불과하며, 2000년 이후에는 역사복합형 백화점의 경우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 곳에서도 나타났지만, 대부분은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 특히 아파트단지와 밀접한 위치적 관계가 있는 곳에 개점하였다.

종합해보면 ‘전생활백화점’이 등장한 이후 3차 생활시설인 백화점이 아파트단지로부터 도보로 10~20분 이내 혹은 자동차로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후에도 이러한 유형이 중요하게 나타났기에 ‘전생활백화점’을 유의미하게 이해할 수 있다.

4.2 일상생활시설의 프로그램화

‘전생활백화점’이라 지칭되었던 것은 신문지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다양한 기능들이 부가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신문에서 언급한 기능들로는 문화센터, 미술관의 문화시설과 수영장 헬스장의 레저스포츠, 어린이놀이시설, 증권·보험가, 외식을 위한 식당가, 관광교통·기상안내, 부동산 투자정보센터, 병원, 약국, 행정관서의 민원서류발급대행 서비스 등이었다. 이러한 기능들이 지역시설로서 가지는 층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미술관 및 전시관과 영화관은 백화점과 동일한 광역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데, 백화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었던 문화센터의 경우 지역시설로서의 층위가 모호하다. 문화센터는 주로 취미와 교양을 위한 강좌들로 개설되었고 그 시작은 1985년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으로 알려져 있다. 유사한 것이 1982년 뉴코아백화점에서 문화교실로 나타나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주부를 위한 다양한 교양학습은 현대백화점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문화센터가 각 백화점마다 모두 운영되자 교육청에서는 이것이 학원과 동일한 기능을 하지만 허가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하였다고 한다.([8]) 이러한 사실로부터 문화센터는 커뮤니티와 교육을 위한 일상생활시설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되며, 실제 이들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간표를 구성하고 있어, 원한다면 매일 이용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기에 일상생활시설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수영장과 헬스장과 같은 스포츠레저시설도 일상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어린이놀이시설은 대부분 놀이터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 역시 일상생활시설이었다. 병원 및 약국 및 행정관서의 민원서류발급대행이나 각종 상담소의 운영 역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즉 광역생활시설인 백화점에 일상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전생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쇼핑 시간을 증대시키고 쇼핑의 편리함을 배가시키기 위한 것들이 아니었다. 일상생활 시설들이 포함된 백화점의 등장 당시 도시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신시가지가 형성되고 있던 중이었기에, 도시 주거에 필요한 지역시설들이 적절하게 배치되고 있지 못하였고, 특히 1970년대 말부터 이루어진 아파트중심의 주거지를 위한 도시계획이 현대적인 생활을 위한 기능의 배치가 실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백화점들이 이러

한 기능들을 수용하여 고객유치에 도움을 받고자 하였던 것이다. 결국 ‘전생활백화점’은 쇼핑이라는 행위 이외 다양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시의 지역시설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으며 아파트단지과 그 주변의 도시적 상황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화해 왔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전생활백화점’을 건축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지역시설로서의 의미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백화점들의 입지와 기능적인 측면을 분석하여 지역시설로서의 층위를 확인하였고, ‘전생활백화점’의 지역시설 의미는 다음과 같다.

광역생활시설로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백화점이 국내에서는 1980년대 말 아파트단지로부터 도보로 10분 이내에 이용가능한 일상생활시설로 위치하였으며, 당시 도시의 상황 상 수용하지 못한 다양한 기능, 특히 일상생활 시설(운동시설, 슈퍼마켓, 미용실, 식당 동사무소, 옥상 정원 등) 및 판매 이외의 광역생활시설인 공연장, 스포츠 레저시설, 영화관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로부터 전생활백화점은 광역생활시설과 일상생활시설이 하나로 결합되어 전체의 생활을 담으려고 했던 지역시설이었으며, 이러한 입지적·기능적 특성은 현재까지도 유의미하다.

단순히 프로그램이 복합화되어 체류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백화점의 등장을 설명하기 위해 ‘전생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도시에서의 현대적 생활을 강조하면서 사용되었기에 ‘전생활백화점’은 소비공간이라는 의미 이상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계속해서 변화되는 백화점의 특성상 백화점 내 일상생활시설의 기능 및 공간 변화 등에 대하여서는 세밀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기에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전생활’이라는 용어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백화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 졌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connected to the website on Jan. 20. 2015)

- [2] Atsushi Yagisawa, Hidehiko Tanimura, Keijil Sato, Yasuhiro Sakurai, Shoji Imai, New Outline of Architecture 21 - Planning of Regional Facilities, SHOKOKUSHA Publishing, Japan, 1994
- [3] Sang-Gyoon Ko etc., Architectural Design Theory, Kwangmoonkag, Korea, 2003
- [4] Cheol-Soo Kim, Site Planning, 124-125, Kimoondang, Korea, 1994
- [5] Beong-Joo Park, Cheol-Soo Kim, 186-187 New Urban Planning, Hyungseul Publishing, Korea, 2001
- [6] NAVER NEW LIBRARY <http://newlibrary.com> (connected to the website on Jan. 20. 2015)
- [7] Ja-Young Goo, Change of the Department Store Concept, Department Store Association Magazine, 1988
- [8] Yeon-Jeong Park, 57-68, A Study on the Development Phase of Department Store in Seoul,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Collection of Dissertations, April 2012
- [9] Mail Economy, "Opposition to 'order of Cultural Center closure', 23 Dec., 1993

박연정(Yeon-Jeong Park)

[정회원]



- 2003년 8월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공학석사)
- 2014년 8월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공학박사)
- 2003년 9월 ~ 2005년 8월 : 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 근무
- 2007년 3월 ~ 현재 : 건축사사무소 N.I.A 팀장

<관심분야>

도시주거, 도시재생, 건축계획 및 이론

References

- [1] NAVER Chinese Dictionary <http://hanja.naver.com/hanja?q=%E5%85%A8>,